팔복은 믿음의 명현현상

(마태복음 5:1~5)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오늘 말씀 중심으로 <팔복은 믿음의 명현현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팔복은 믿음의 명현현상'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팔복이란 여덟 가지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게 되는 복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과 천국도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영생하시기에 그 자녀인 나도 영생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계신 집이 천국이기에 자녀인 나의 집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팔복에 대한 말씀은 여덟 가지 복을 망라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복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덟 가지 측면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명현현상(瞑眩現象)이란 치유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태가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화를 하나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오셨는데 시각장애인 안마사이신 집사님이셨습니다. 다른 집사님께서 비용을 내시고 저의 안마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난생처음 안마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마를 받는데 어찌나 손의 힘이 강하던지 시원한 것이 30% 아픈 것이 70%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온 몸에 몸살이 난 것처럼 괴로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안마사를 보내주신 집사님과 통화하게 되어서 상태를 말씀드렸더니 명현현상이라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제 몸에 뭉친 곳이 많고 혈관의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풀리니 그것이 마치 몸살과도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명현현상이란 치유과정에서 악화되는 것 같은 상태로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이 바로 명현현상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 안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반드시 증상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이 증상을 여덟 가지로 말씀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이란 천국을 내 것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맨 마지막으로 다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을 강조하십니다. 중간의 여섯 가지 증상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격적인 명현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가난하고 애통한다는 말이 나오니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작용 같이 느껴지는 명현현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증거가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명현현상과 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처음 안마를 받은 사람이 잠깐 시원하고 말았다면 가짜 안마를 받은 셈입니다. 피곤하고 온몸이 뭉친 사람이 제대로 안마를 받았다면 몸살이 날만큼 몸이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게 될지라도 부작용이 아니니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제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다는 증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복의 여덟 가지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열쇠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덟 가지 증상을 말씀해주신 후에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11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덟 가지 증상의 전부에 해당됩니다. 즉 3절의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가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은 '(나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에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심령이 가난하면 예수님 없이도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애통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공관복음으로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모두 십자가 사건과 부활사

건에 초점을 맞추고 이로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 말씀들의 어느 한 구절도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조명되지 않은 구절이 없으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염두에 두지 않고 행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덟 가지의 명현현상과도 같은 증거가 나타나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염두에 둘 때에 본문의 말씀이 주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3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하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할 수 없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천국도 현실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이란 곧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가난할 때에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없고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달리 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의 마음은 솟아나는 샘물 같아서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나 학식이나 건강 등이 없어도 마음은 절대로 마르거나 가난한 법이 없습니다. 다만 특정 대상에 대해서 쓸 마음이 없어서 가난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엄청난 마음을 쏟아 붓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 대해 마음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가 됨을 의미합니다.
골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와 관련해서 쓸 마음이 좁쌀만큼도 없습니다. 골프에 대해서 제 마음이 너무나 가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골프에 대해 마음이 부자입니다. 마음이 향하고 있으니 외제 골프채를 사기 위해 큰돈을 지불하고, 억 소리가 나오는 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을 사는 것에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돈을 쓰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필드에 나가서 코스를 돌며 시간을 보냅니다. 골프에 엄청나게 마음을 지불하는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지으실 때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셔 들일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각해보자면 세상에 사람의 마음처럼 값진 것은 달리 없습니다. 따라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골프에 엄청나게 투자한 부자인 셈입니다. 반면 골프에 관심이 없는 저는 골프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으니 골프에 대해 무척 가난합니다.
골프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대상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의 비전에 대해 마음을 쏟아 붓습니다. 저는 미래의 비전에 대해 전혀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로부터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갖는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천국 즉 하늘의 나라를 갖

기 위한 마음의 가난함은 곧 땅에 대한 가난함입니다. 마음을 지불해야 천국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전혀 천국에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을 가질 수 없습니다.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땅에 대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나인 성 과부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겠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자면 과부는 하층민이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돈도 없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건강도 나빴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과부는 모든 마음을 줄 유일한 대상이 외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만 그 마음을 아들에게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인 성 과부가 아들에게 마음을 사용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 마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쓸 마음이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삶에서 그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곧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같이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 대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이 고백되어야만 합니다. 간단히 말해 예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써 배우자에게는 쓸 마음이 없어지고 배우자에 대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일에 대해서도 상사나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도 쓸 마음이 없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바라보며 나와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에 쓸 마음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하늘의 나라가 내 마음에 현실로 체감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을 것이라면 몰라도 믿는다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스스로 살아있는 자로써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순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철길처럼 계속 이어져야지 징검다리처럼 띄엄띄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가는 것으로 믿음이 온전해 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삶에서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온 마음을 하늘을 향해 쓰는 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천국은 마음에서 현실로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증거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위로라고 번역된 부분은 헬라어 파라칼레오(παρακαλέω)으로써 파라(παρά)는 "옆으로, 곁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καλέω)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로라는 말은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애통은 슬퍼하며 한탄하는 것입니다. 애통은 상실감에서 나타납니다. 갖고 있는 것을 상실하거나 꼭 갖고 싶었던 것을 못 갖게 될 때에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모든 마음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돈을 벌지 못했을 때에 애통하게 됩니다. 혹은 돈을 많이 벌어 잠시 기뻤지만 금세 다 잃게 되었다면 더욱 애통할 것입니다.

앞서 나온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심령이 부자인 대상에 대해서만 애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을 3절의 말씀과 닮은꼴로 만들어보자면 "나로 말미암아 하늘에 대해 심령이 부자인자는 애통할 수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애통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없거나 이미 가진 것을 잃었을 때에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적용될 때에 우리는 애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합니다. 부활의 증거는 방향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셔 들일 수 있도록 비어있게 지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 땅을 향합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형통 같은 것들을 빨아들여서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었음을 인정하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을 향하여 빨아들이는 기운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나의 마음이 빨아들여야 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애통함이 생겨납니다.

이전에는 돈에 대해서 심령이 부자인 상태에서는 돈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또 자녀에 대해서 심령이 부자였기에 자녀가 잘되어야만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으니 나의 노력을 통해서는 가질 수가 없기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함이 없으면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까짓 위로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서 위로라고 번역된 파라칼레오는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지고 싶어서 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들의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 자들은 애통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곁으로 부르실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나 자녀의 형통에 대해 가지는 간절함은 굉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해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갖겠다는 간절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가지지 못할 때의 애통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애통함을 가진 자

들을 하나님은 곁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논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한 자들에게는 그 증거로써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애통함이 존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들만이 하나님 우편에 부름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속으로 기뻐서 웃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대체 목사님은 얼마나 하나님 재벌이십니까?"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이 질문이 무척 기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부자가 되기 힘들까요?"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와서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릴까요?"라고 호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하나님 벌기가 힘들까요?"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을 보면 곧 위로를 얻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기계적으로 달라고 하면 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란 곧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애통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승진을 뒤로하고 하나님 가지기를 바라고 애통하는 것이야 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명현현상입니다. 이 애통함의 과정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또한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없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이야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천사보다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부여받았다는 점입니다. 천사들은 늘 하나님을 곁에 모시고 있기에 애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을 입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갖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애통함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에 대해 애통하다가 죽더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건강이나 형통을 너무나 갖고 싶어 합니다. 돈 못 벌고 좋은 사람만나서 결혼 못하는 것을 애통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갖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곁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돈에 대한 애통함, 건강에 대한 애통함, 자녀의 형통에 대한 애통함, 나라에 대한 애통함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명현현상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 애통함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

다. 복이 있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까지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말씀입니다.
나머지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생애초기에 확증해주신 명현현상들이 속속들이 나타나 놀라운 복 이전의 복을, 복을 불러들이는 복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